



## 고등학교 기초교과목군 (국어, 영어, 수학) 선택 현황에 기초한 교육적 논의: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경남 (강원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Dec. 20, 2020  
Revised: Jan. 03, 2021  
Accepted: Jan 15, 2021

Kyoung-Nam Lee  
Professor, Dept. of English Education, Kangwon Nat'l University

010-7185-2815  
[kynalee@kangwon.ac.kr](mailto:kynalee@kangwon.ac.kr)

\*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author's presentation in ELLAK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c. 19, 2020.

### ABSTRACT

**Lee, Kyoung-Nam. 2021. A pedagogical discussion based on the investigation into students' selection tendencies in three basic subjects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of the high school curricula: Centered on general high schools in Seoul.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1, 1-18.**

This study aims to ascertain any change in the status of "English" in general high schools' curricula by investigating students' selection tendencies among the three basic subjects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within the subject selection system. The other aim is to foster a consciousness for the urgent educational issues under the current educational policies identified i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The research data was collected in 2020 from second graders and third graders at 75 and 76 high schools in Seoul. The data shows that the number of courses offered and selected in the three subjects strongly differs between the second and third grades. The results from a one-way ANOVA and Tukey post hoc test reveal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number of students' selection of the three subjects, except for the first semester of the second grade. English has the lowest selection numbers in all the analyses while Mathematics has the highest selection numbers among second graders and Korean has the highest among third graders. These findings prove that the absolute evaluation of English in the College Scholastic Achievement Test (CSAT) influences the high school education system. It is the key point of this paper that the weakening position of English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will negatively impact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and proficiency in English and hinder their competitiveness in our globalized society.

### KEYWORDS

general high school curricula, subject selection system, students' selection tendencies, Korean, English, Mathematics, absolute evaluation in CSAT, public education system

## 1. 서론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대학입시제도와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 공통 기초교과목군에 속하는 국어, 영어, 수학 영역 중 영어에만 절대평가를 실시한 지 올해로 4년차를 맞게 된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이후 고등학교에서 과목선택제가 적용된 지는 2년차를 맞게 된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영어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공교육 현장에서의 영어교육의 위기는 세계화 시대 속에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 2018, 2019, 이하 영단협). 또한 교육부의 절대평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교육비의 부담은 줄지 않았으며(통계청 2020) 오히려 국어, 수학과 같은 다른 과목으로의 풍선효과(데일리안 2018)를 지켜보게 되었고 변별력이 높다고 생각되는 다른 과목들이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능 영어 영역의 절대평가와 과목선택제 실시가 일반고등학교 영어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과목선택제는 일반고등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 영역 과목 운영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
- 2) 과목선택제로 인하여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영역별 과목 선택 경향에서 영어의 선택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들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은 수능 영어 평가제도의 변화와 과목선택제 실시로 인하여 일반고등학교와 같은 공교육 제도 속에서 영어의 위상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였는지 아니면 수능이나 대학입학전형과 관련된 복잡한 함수관계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에서 영어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에 대한 교육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 2. 수능 영어 절대평가와 과목선택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바탕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당시의 세태와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처럼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수능 영어 정책의 변화에만 국한해도 이러한 경향을 알 수 있다. 황종배(2014)의 발표에 의하면 수능 등급제의 도입(2008학년도)과 1년만의 폐기, 수능과 EBS 연계 70% 정책(2011학년도), 만점자 1% 정책(2012학년도), 듣기 50% 확대 방안(2014학년도, 이후 1년만의 수정), 수준별(A/B

형) 수능(2014학년도, 영어 영역은 1년만에 폐지), 쉬운 영어 정책(2015학년도)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시선발 전형의 공정성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에서 정시선발 인원 비율을 갑자기 증가시키는 정책들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수능의 상대평가 방식이 갖는 문제점과 그로 인한 고등학교 교육의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이 진지하게 논의되다가 2014년 12월 26일에 발표된 수능의 영어 영역에만 적용되는 절대평가 도입 또한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당시 상대평가 체제의 폐해가 ‘학생 간의 상대적 서열을 중시하기 때문에 성적 향상을 위한 무한경쟁을 초래하여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과잉학습이 유발되는 문제’(교육부 2014)로 지적되었다. 그런데 동일한 기초교과목군에 속하는 국어, 수학은 그대로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영어 영역만 ‘학생 변별을 위해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으로 인해 불필요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초래’하는 과목으로 지목되면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은 3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영역 절대평가가 실시되기 이전에 특정 과목만 절대평가를 적용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예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병민(2014)은 수능의 영어 평가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어떤 점수가 어떤 능력을 반영하는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영어에 대한 수준별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그해 수험생들의 영어 능력에 따라서 또는 출제된 영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며,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성, 내신 등급제, 수능 등급제 하에서는 학교 영어교육의 정상화 또한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영어 영역 절대평가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었다: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 학습의 ‘편중 효과’, 사교육의 ‘풍선효과’, 대입전형의 ‘대체효과’, 영어 생애 교육의 ‘단절효과’, 절대평가의 ‘절대 기준’ 선정 및 영어 격차 문제(강규한 2014, 이병민 2014, 황중배 2014). 특히 사교육의 풍선효과의 문제는 각종 언론에서도 다루어질만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다(베리타스 알파 2015, 중앙일보 2014, 한재갑 2014).

그렇다면 실제로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영역 절대평가가 실시된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한 만큼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특히 수능시험의 난이도 조절은 잘 되었는지,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영어 영역은 제대로 된 절대평가의 목적을 구현하는 시험으로 운영되었는지,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취지처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균형 있는 교실 수업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보완적 노력의 지속’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없다. 특히 영어 영역 절대평가 실시 이후에 야기된 수능 영어시험이 갖는 문제점(김정태 2019, 이영식 2018),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 학습 부담 감소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 EBS 교재의 수능 연계 정책으로 인한 학교 영어 수업의 정상화와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황중배 2018)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권을 부여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2019학년도부터 일반고등학교에서는 과목선택제가 시행되고 있다(교육부 2015). 이러한 제도의 골자는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면서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 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통 기초과목군 중 영어와 한국사 영역에만 절대평가가 실시됨으로써 국어와 수학 같은 다른 기초교과목과의 균형이 잘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20년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고, 2022년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고교학점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학교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학점제 도입의 취지는 교육부에 의하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뤄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즉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시도들은 원래의 도입 취지에 맞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하여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영어 영역 절대평가 실시와 고등학교 과목선택제도 도입 이후 기초교과목군에 속하는 국어, 영어, 수학 간의 학생 선택 비중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영어 절대평가가 실시되었던 2018학년도 수능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른 과목으로 옮겨간 난이도의 문제, 그에 따른 사교육의 풍선효과와 영어 실력의 하향 추세 등등 교육부의 도입 취지와는 상반되는 현상들이 교육 현장에서 많이 목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에 참여해준 서울 소재 일반고등학교는 2020학년도인 현재 2학년의 경우 75개교, 3학년의 경우 76개교이다<sup>1</sup>. 자치구별 분포도는 표 1과 같다.

<sup>1</sup>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공하였음. 성동구의 한 학교는 학교 이전으로 인해 2학년 재학생이 없어서 학년에 따른 학교의 수에 차이가 발생함(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표 1. 고등학교 2·3학년 자료 제공 학교의 자치구별 분포도

자치구	학교 수		자치구	학교 수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강남구	5	5	서대문구	1	1
강동구	4	4	서초구	5	5
강북구	2	2	성동구	4	5
강서구	3	3	성북구	1	1
관악구	4	4	송파구	9	9
광진구	2	2	양천구	3	3
구로구	4	4	영등포구	6	6
금천구	1	1	용산구	1	1
노원구	4	4	은평구	3	3
도봉구	5	5	종로구	1	1
동대문구	1	1	중랑구	3	3
동작구	3	3			
총 23개구	총 75개교	총 76개교			

### 3.2. 자료 분석

‘과목선택제는 일반고등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 영역 과목 운영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라는 첫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2020년 서울 소재 일반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과목선택제 적용에 따라 영역별로 개설된 과목의 수를 조사하고 실제로 실행된 과목 수의 백분율을 살펴본다. 또한 학년별, 학기별로 3개 영역과 관련하여 과목이 열리지 않은 학교의 수를 조사한다.

‘과목선택제로 인하여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영역별 과목 선택 경향에서 영어의 선택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가?’라는 두 번째 연구 문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영역별로 선택한 학생들의 총 수를 조사하고 영역 간 선택분포도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먼저 과목선택제의 적용에 따라 2, 3학년을 통합하여 영역별 차이를 살펴본 후 학년별, 학기별로 학생들의 수강 신청의 실태를 살펴본다. 세 영역별 차이의 통계적인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Excel 20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탭-데이터 분석 중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사후분석으로 Tukey HSD 검증을 통하여 어느 영역 간의 차이가 정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 4. 연구 결과

### 4.1. 연구 문제 1

참여 학교들이 국어, 영어, 수학 영역에서 학년별, 학기별로 개설한 과목의 수와 학생들이 선택하여 실제로 수업이 실행된 과목의 수를 조사하고 그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학년별, 학기별 3개 영역 개설과목 수 및 실행과목 수

		1학기			2학기		
		국어 영역	영어 영역	수학 영역	국어 영역	영어 영역	수학 영역
2학년 (75개교)	개설과목 수	63	<b>73</b>	89	64	<b>74</b>	93
	실행과목 수	59	<b>63</b>	81	58	<b>62</b>	84
	실행 백분율	94%	<b>86%</b>	91%	91%	<b>84%</b>	90%
3학년 (76개교)	개설과목 수	128	<b>134</b>	215	128	<b>130</b>	214
	실행과목 수	104	<b>99</b>	166	105	<b>99</b>	166
	실행 백분율	81%	<b>74%</b>	77%	82%	<b>76%</b>	78%

위의 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세 개의 영역별로 개설된 과목의 수가 2학년과 3학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즉 3학년에 개설된 과목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실제 실행된 과목의 비율을 보면 3학년에 와서 공통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영역별 과목의 수들이 모두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3학년에서 선택의 범위가 훨씬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에 따라 특정 학년에서 영역에 따라 과목을 전혀 개설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2학년의 경우 자료 수집에 참여한 학교가 75개교인데 국어와 영어 영역의 경우에는 개설과목의 수가 1학기에는 각 63개(국어), 73개(영어), 2학기에는 각 64개(국어), 74개(영어)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영역당 한 과목 이상을 개설한 학교도 있다는 점과 국어와 영어 영역에서 실제 실행된 과목의 수가 1학기에 59개(국어), 63개(영어), 2학기에 58개(국어), 62개(영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2학년 1, 2학기 전체에 걸쳐 이들 영역의 과목이 전혀 개설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을 합쳐 고등학교 3년 동안 최대 90단위 이내로 운영하면 되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을 합쳐 최대 84단위까지 가르칠 수 있고, 같은 기초 교과목군에 속하는 한국사는 6단위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은 84단위에서 어느 특정 영역이 50%를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에 따라 교과선택제 운영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시수 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어떤 학교에서는 문과와 이과 구분이 있었던 2017학년도만 해도 국어, 영어, 수학의 이수 단위가 정해져 있었고, 영어의 경우 문과는 주당 6시간, 이과는 5시간 등으로 수업시수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문·이과 통합으로 4시간으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을 토대로 2020학년도에 학년별, 학기별로 세 영역의 과목이 실제로 열리지 않은 학교의 수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학년별, 학기별 3개 영역 과목이 없는 학교의 수**

		1학기			2학기		
		국어 영역	영어 영역	수학 영역	국어 영역	영어 영역	수학 영역
2학년 (75개교)	과목 없음	25개교	<b>24개교</b>	15개교	26개교	<b>25개교</b>	12개교
3학년 (76개교)	과목 없음	7개교	<b>13개교</b>	1개교	6개교	<b>14개교</b>	1개교

위의 표를 보면 2학년의 경우, 국어와 영어 영역의 과목이 없는 학교의 수는 비슷하나, 수학 영역의 과목이 없는 학교는 약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3학년의 경우에는 2학년에 비해 국어 영역이 없는 학교는 1학기에는 25개교에서 7개교로 줄어들고, 2학기에는 26개교에서 6개교로 줄어든다. 그러나 영어 영역에서는 1학기의 경우 24개교에서 13개교로 줄어들고, 2학기에는 25개교에서 14개교로 줄어들지만, 3학년에서도 국어 영역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차이로 영어 과목이 없는 학교의 수가 많다. 그러나 수학의 경우, 3학년에서는 한 학교만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목선택제의 적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의 세 영역에서 한 영역의 과목이 실행되지 않은 학교, 두 영역이 실행되지 않은 학교, 그리고 세 영역 모두 실행되지 않은 학교의 수를 학년별, 학기별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영역별 과목이 실행되지 않은 학교의 수**

		1학기	2학기
2학년 (75개교)	한 영역	9개교	8개교
	두 영역	8개교	11개교
	세 영역	13개교	11개교
3학년 (76개교)	한 영역	10개교	10개교
	두 영역	4개교	4개교
	세 영역	0개교	0개교

이번에는 영역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의 범위가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알아본다. 표 5에 제시되는 수치는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하여 수업이 열린 과목의 수와 상관없이 개설된 숫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개설 과목의 수를 조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각 영역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표 5. 영역별 학년별, 학기별 개설과목 수

학년	개설과목 수	1학기			2학기		
		국어 영역	영어 영역	수학 영역	국어 영역	영어 영역	수학 영역
	0	23개교	<b>22개교</b>	13개교	24개교	<b>22개교</b>	11개교
2학년	1	43	<b>39</b>	41	41	<b>38</b>	42
	2	7	<b>9</b>	16	8	<b>10</b>	17
	3	2	<b>4</b>	4	2	<b>4</b>	3
	4	0	<b>1</b>	1	0	<b>1</b>	2
3학년	0	5	<b>8</b>	0	4	<b>9</b>	0
	1	32	<b>22</b>	11	34	<b>24</b>	12
	2	26	<b>28</b>	18	23	<b>25</b>	17
	3	8	<b>16</b>	24	10	<b>16</b>	24
	4	5	<b>2</b>	19	5	<b>2</b>	19
	5	0	<b>0</b>	4	0	<b>0</b>	4

위의 표 5를 보면 2학년에서는 국어와 영어 영역이 전혀 개설되지 않은 학교의 수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수학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었음(1학기에는 13개교, 2학기에는 11개교)을 알 수 있다. 또 각 영역에 따른 과목 선택의 범위를 보면 한 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공통적으로 월등히 많았다. 그리고 국어의 경우에는 2-3개 과목을 개설한 학교들도 조금 있었다. 영어의 경우에는 2-3개 과목을 개설한 학교 이외에 4과목까지 개설한 학교도 한 군데가 있었다. 수학의 경우에는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 학교의 수가 늘었으며, 3-4개의 과목을 개설한 학교도 한두 군데 더 있었다.

3학년의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 영역을 보면 과목 개설을 하지 않은 학교가 2학년 때보다는 대폭 줄었다. 그러나 수학 과목은 모든 학교가 개설하였다. 국어의 경우, 한 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수가 2학년 때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았고, 두 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수도 세 배 정도 늘었다. 또 세 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수도 늘었고 네 과목을 개설한 학교도 다섯 학교가 있었다. 영어에서는 두 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수가 2학년에 비해 약 세 배 정도 늘었으며, 세 과목을 개설한 학교도 2학년에 비하여 네 배로 늘었다. 특기할 것은 세 과목을 개설한 학교도 국어 영역보다 많았다. 그러나 네 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수는 2학년 때보다 한 학교가 더 늘었으나 국어 영역보다는 적었다. 그러나 수학을 보면 세 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네 과목, 두 과목, 한 과목 순으로 개설한 학교의 수가 나타나며 다섯 과목을 개설한 학교도 네 곳이나 있었다.

이처럼 영역에 따라 과목 개설의 범위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선택제 적용으로 인하여 기초교과목군에 속하는 영역별 간에 얼마나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 4.2. 연구 문제 2

2020년 과목선택제를 통하여 2학년과 3학년 1, 2학기에 걸쳐 국어, 영어, 수학 영역에서 학생들이 관련 과목을 선택한 경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를 정리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학생 수 계산에서는 동일 학생이 동일 영역에 개설된 과목을 두 과목 이상 선택하면 선택한 수만큼 합산이 된다. 따라서 한 학교의 2, 3학년 재학생 수의 합보다 학생의 수가 클 수도 있다.

표 6. 2, 3학년 1, 2학기 통합 영역별 차이 비교

인자의 수준	관측수	합	평균	분산	
국어	151	44635	295.596	67323	
영어	151	34182	226.3709	47793.66	수학 > 국어 > 영어
수학	151	45202	299.351	48874.22	

  

분산 분석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p	F 기각치
처리	509993.6	2	254996.8	4.664835	0.009881	3.015764
잔차	24598632	450	54663.63			
계	25108626	452				

표 6에 의하면 수학 영역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다음 국어 순으로 나타났는데 학교별 평균치로 보면 수학은 299명, 국어는 295명으로 이 두 영역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sup>2</sup>. 그러나 영어의 경우 226명으로 수치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는 0.010<sup>3</sup>( $p < 0.05$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하여 사후분석을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2, 3학년 1, 2학기 통합 영역별 차이 사후분석 결과

(I) 과목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국어	영어	69.225*	26.908	<b>0.028</b>	5.95	132.50
	수학	-3.755	26.908	0.989	-67.03	59.52
영어	국어	-69.225*	26.908	<b>0.028</b>	-132.50	-5.95
	수학	-72.980*	26.908	<b>0.019</b>	-136.25	-9.71
수학	국어	3.755	26.908	0.989	-59.52	67.03
	영어	72.980*	26.908	<b>0.019</b>	9.71	136.25

<sup>2</sup> 학생수 언급에서 소수점 이하를 빼고 표기함

<sup>3</sup> 소수점 이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이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함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영어와 국어( $p = 0.028 < 0.05$ ), 영어와 수학( $p = 0.019 < 0.05$ )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학년별, 학기별로 과목선택제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먼저 2학년 1학기의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2학년 1학기 영역별 차이 비교

인자의 수준	관측수	합	평균	분산	
국어1	75	7889	105.1867	10978.4	수학 > 국어 > 영어
영어1	75	7032	93.76	10152.75	
수학1	75	9935	132.4667	15055.39	

  

분산 분석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p	F 기각치
처리	59324.33	2	29662.16	2.459105	0.087838	3.036524
잔차	2677804	222	12062.18			
계	2737128	224				

2학년 1학기 세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 결과를 보면 수학이 9,935명으로 학교별 평균 132명, 국어가 7,889명으로 평균 105명, 영어가 7,032명으로 평균 93명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영어를 선택한 학생들의 수가 제일 적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는 0.088( $p < 0.05$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2학년 2학기의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2학년 2학기 영역별 차이 비교

인자의 수준	관측수	합	평균	분산	
국어2	75	7828	104.3733	11220.67	수학 > 국어 > 영어
영어2	75	6937	92.49333	10400.69	
수학2	75	10423	138.9733	14537.86	

  

분산 분석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p	F 기각치
처리	87467.12	2	43733.56	3.628416	0.028145	3.036524
잔차	2675782	222	12053.07			
계	2763249	224				

표 9를 보면 2학년 2학기에도 학생들은 수학 영역을 가장 많이 선택하여 10,423명으로 학교별 평균 138명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국어로 7,828명이며 평균 104명, 그리고 영어는 6,937명으로 평균 92명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1학기과 비슷해 보이지만 통계적 유의도는 0.028 ( $p < 0.05$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영역별 선택의 차이가 그만큼 더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2학년 2학기 사후분석 결과

(I) 과목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국어	영어	11.880	17.928	0.785	-30.42	54.18
	수학	-34.600	17.928	0.133	-76.90	7.70
영어	국어	-11.880	17.928	0.785	-54.18	30.42
	수학	-46.480*	17.928	0.027	-88.78	-4.18
수학	국어	34.600	17.928	0.133	-7.70	76.90
	영어	46.480*	17.928	0.027	4.18	88.78

2학년 2학기의 사후분석에서는 영어와 수학( $p = 0.027 < 0.05$ )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3학년 1학기의 경우를 살펴보자.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3학년 1학기 영역별 차이 비교

인자의 수준	관측수	합	평균	분산	
국어1	76	14472	190.4211	19818.38	국어 > 수학 > 영어
영어1	76	10206	134.2895	13025.14	
수학1	76	12279	161.5658	9460.249	

분산 분석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p	F 기각치
처리	119760.2	2	59880.12	4.246438	0.015479	3.035975
잔차	3172783	225	14101.26			
계	3292543	227				

3학년 1학기에서는 2학년 때와 달리 국어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14,472명으로 학교별 평균 190명이 선택하여 평균 수치도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 결과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으로 수학은 12,279명으로 평균 161명, 영어는 10,206명으로 평균 134명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갖는 통계적 유의도는 0.015( $p < 0.05$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3학년 1학기 사후분석 결과

(I) 과목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국어	영어	56.132*	19.264	0.011	10.68	101.58
	수학	28.855	19.264	0.294	-16.59	74.30
영어	국어	-56.132*	19.264	0.011	-101.58	-10.68
	수학	-27.276	19.264	0.334	-72.73	18.17
수학	국어	-28.855	19.264	0.294	-74.30	16.59
	영어	27.276	19.264	0.334	-18.17	72.73

3학년 1학기의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영어와 국어( $p = 0.011 < 0.05$ )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수능을 치르게 되는 마지막 학기인 3학년 2학기에는 어떠한 선택의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3학년 2학기 영역별 차이 비교

인자의 수준	관측수	합	평균	분산	
국어2	76	14446	190.0789	18679.7	국어 > 수학 > 영어
영어2	76	10007	131.6711	13237.69	
수학2	76	12565	165.3289	11093.48	

분산 분석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p	F 기각치
처리	130641.4	2	65320.71	4.556108	0.01149	3.035975
잔차	3225815	225	14336.96			
계	3356457	227				

표 13의 분석 결과를 보면 3학년 1학기 때와 동일하게 국어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의 전체수가 14,446명, 학교별 평균 190명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은 수학인데 12,565명으로 평균 165명이 선택하면서 1학기 때보다 몇 명 더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영어는 전체 10,007명, 학교별 평균 131명으로 수학과 달리 오히려 몇 명이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역별 선택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도 0.011( $p < 0.05$ )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3학년 2학기 사후분석 결과

(I) 과목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국어	영어	58.408*	19.424	0.008	12.58	104.24
	수학	24.750	19.424	0.411	-21.08	70.58
영어	국어	-58.408*	19.424	0.008	-104.24	-12.58
	수학	-33.658	19.424	0.195	-79.49	12.17
수학	국어	-24.750	19.424	0.411	-70.58	21.08
	영어	33.658	19.424	0.195	-12.17	79.49

3학년 2학기의 사후분석에서도 3학년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국어( $p = 0.008 < 0.05$ )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4.3. 요약 및 논의

#### 4.3.1. 요약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과목선택제는 일반고등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 영역 과목 운영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라는 첫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주면서 영역 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과목선택제도 적용에 따라 공통 필수과목을 빼고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보니 과거에 주요 과목으로 인식되었던 기초교과목군에 속하는 국어, 영어, 수학 영역에서 학년에 따라 개설되지 않는 학교들도 다수 있고, 영역에 따른 편차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2학년에서는 어느 한 영역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세 영역 전부 개설되지 않은 학교도 75개의 학교 중 1학기에는 13개교, 2학기에는 11개교가 있었다. 그리고 국어와 영어에 비해 수학 영역의 개설 과목이 많았으며 실제로 학생들이 선택하여 이수하는 비율도 1학기에는 91%, 2학기에는 90%에 이르렀다. 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영어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으로 개설되었지만 학생들이 선택한 비율은 1학기에는 94%, 2학기에는 91%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어는 선택률이 1학기에 86%, 2학기에 84%로 나타나 세 영역 중 제일 적게 선택하였다.

3학년에서는 이들 세 영역을 전부 개설하지 않은 학교는 없었다. 또한 영역별 과목의 개설수도 2학년에 비해 3학년에서 대폭 증가하고 다양해졌고 그중에서도 수학 영역의 과목 수가 국어, 영어에 비해 월등히 많이 개설되었다. 그런데 영역별 과목 수가 증가하다보니 선택률은 2학년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지만(1학기에는 국어 81%, 영어 74%, 수학 77%, 2학기에는 국어 82%, 영어 76%, 수학 78%), 여전히 과목 수는 국어, 수학 영역의 경우, 2학년에 비해 두 배 정도로 다양하게 실행되었다. 그러나 영어는 선택률도 가장 낮고, 과목 수는 2학년에 비해 1.5배 정도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수로 실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제도 속에서는 ‘과목선택제로 인하여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영역별 과목 선택 경향에서 영어의 선택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가?’라는 두 번째 연구 문제를 살펴본 결과, 영어의 위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영역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 수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2, 3학년 전체를 합쳐서 보았을 때 수학, 국어의 순으로 선택을 하였으나 이 두 영역 사이의 수치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영어는 가장 적게 선택을 하고 있었고 유의도가 0.010( $p < 0.05$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영어와 국어의 차이는 유의도가 0.028( $p < .05$ )로 나타나고, 영어와 수학의 차이의 유의도는 0.019( $p < 0.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학년별, 학기별로 나누어 살펴본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영어를 가장 적게 선택하였으나 2학년 1학기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088 > 0.05$ ). 그러나 2학년

2학기에는 통계적 유의도가 0.028( $p < 0.05$ )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1, 2학기 모두 수학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사후분석 결과에서도 영어와 수학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 $p = 0.027 < 0.05$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학년에서는 2학년 때와 달리 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의 수가 가장 많았고, 영어를 여전히 가장 적게 선택하였다. 1학기의 경우 세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 수의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는 0.015( $p < 0.05$ )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2학기에도 유의도가 0.011( $p < 0.05$ )로 나타나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에서도 1, 2학기 모두에 걸쳐 영어와 국어(1학기  $p = 0.011$ , 2학기  $p = 0.008$ )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 4.3.2. 논의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 결과가 영어 영역과 관련하여 보여주는 교육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수능 평가방식과 관련하여 3년 예고제에 따라 2014년 12월에 발표된 영어 영역만의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그 시기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예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와 아울러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으로 고등학교에서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운영과 함께 기초 공통과목을 제외하고 과목선택제에 따라 과목 개설의 수와 수업시수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2022학년도 개편안에 따른 수능 체제의 변화를 보면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영역의 범위가 4과목, 수학은 가형, 나형 각각 세 과목이고, 2022학년도에서는 국어 세 과목, 수학 세 과목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영어는 두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교육부 2015). 따라서 구조적으로 국어, 수학교보다 영어 영역이 위축될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sup>4</sup>.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염려와 함께 학력 격차의 심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전국 공립중등교사 선발 인원의 변화 추이 또한 다음 표 17을 보면 2014학년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국어, 수학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발 인원수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전국 공립중등교사(영어/국어/수학) 임용 선발 일반 인원 및 2014학년도 대비 인원 변화율

학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영어	인원수	672	528	378	276	249	238	251	258
	변화율(%)	100	78.6	56.2	41.1	37.1	35.4	37.3	38.4
국어	인원수	593	510	385	339	324	287	361	371
	변화율(%)	100	86.0	64.9	57.2	54.6	48.4	60.9	62.6
수학	인원수	567	480	385	342	298	257	349	346
	변화율(%)	100	84.7	67.9	60.3	52.6	45.3	61.6	61.0

<sup>4</sup> 이경옥(2019, p. 17)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학생 교과 선택권을 열어 놓았어도 교육과정 편제 구조와 수능 출제과목으로 인하여 영어는 2, 3학년 학생 선택에서 배제되는 뻔한 결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위축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자칫 과목 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어 공론화를 자제하다가 교육의 목적과 본질이 훼손되고 동일 기초 교과목군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영단협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두 번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첫해의 심포지엄의 큰 주제는 ‘한국 영어교육의 위기: 학교 영어교육과 국가 경쟁력’이었고, 두 번째 해의 주제는 ‘한국 영어교육의 위기: 유치원부터 대학 너머까지’였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고등학교 현장에서 과목선택제에 따른 국어, 영어, 수학 영역 과목의 학생 선택 수의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그동안 염려하였던 영어 영역의 위축은 위의 요약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로 드러났다.

과목선택제 도입 취지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 운영 방식은 꼭 의도한 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일선 교사들과 대화를 해보면 학교 사정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진로 확립이 되지 않은 학생들의 비율도 절반에 이르고, 내신 등급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지거나, 대학입학전형 방식에 따른 모양 갖추기의 선택을 해야 하거나, 선택 규정에 따라 적성과 상관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래의 교육적 취지가 실현되려면 교육 현장과 대입제도와와의 함수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본적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 5. 결론 및 교육적 함의

공교육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2020년 올해와 같이 전혀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없는 날들이 많아지고, 지각 변동을 방불케 하는 온라인 교육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앞당겨짐으로써 학생들의 사회화 경험의 절대적 부족과 함께 교육의 양극화에 따른 학습격차의 심화 및 학력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다.

때마침 한국일보(2020)에서 다룬 기사에 의하면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변화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내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과목에 대하여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의 지필고사 성적을 비교·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수학 과목의 경우 중위권 이하는 학력 저하, 상위권은 학력 향상 현상을 보인 데 반해,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학력 저하 현상을 보여 중위권 이하 비율이 높아졌다는 언급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또한 최우수 학생들이 들어간다고 알려진 서울대 입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하다는 보도도 있었다(e-대학저널 2020). 올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취재한 것으로 “2017~2020학년도 연도별 신입생 수학 및 영어 성취도 측정시험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신입생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초 영어 실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신입생 3명 중 1명 꼴로 기초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보도 내용과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영어만의 절대평가 실시, 여전

히 유지되고 있는 수능과 EBS 70%의 연계율, 대학입학전형에서 영어 비중의 약화, 그에 따른 영어 과목 선택 비율의 상대적인 저하 등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공교육에서 영어 영역의 약화는 가정경제력에 따른 영어 격차 현상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처럼 기초학력의 저하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와도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미래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단일 언어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어학습의 생리상 자연스럽게 지속될 수 있는 목표어에 대한 노출시간을 인위적으로라도 늘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배운다고 해도 실제로 일반 학생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접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두, 세 시간, 중학교에서 서너 시간, 고등학교에 가서는 보통 공통 기초과목으로 영어를 배우는 학년의 경우에 일주일에 네, 다섯 시간이 된다. 더욱이 과목선택제 적용에 따라 이미 앞의 실태조사에서 보았듯이 아예 1년 내내 영어 수업이 없을 수도 있다. 사교육이 뒤따르지 않고는 일반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절대적으로 줄어들다는 말이 되고 이는 기초학력 저하와 맞물려 있다. 영어 학습의 부진 문제는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학습 부진이 적절한 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다가 중고등학교에서 이 문제가 한꺼번에 나타나며, 초기의 영어 문해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까닭은 초기의 문해력이 향후 학업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이윤 2019, pp. 4-5)”는 것과 연관이 있다. 또한 “영어 실력의 격차는 기존의 사회 양극화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문귀선 2018, pp. 14-15)”는 지적 또한 공교육에서 말아야 할 학교 영어교육의 중요성과 책무성을 일깨운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과목 선택 실태가 보여주는 양상은 서울 소재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학원이 많지 않은 지방 소재의 고등학교 실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영어 전공자들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한낱 과목 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말고 부디 공교육을 통해 가정경제력에 의한 교육의 격차를 줄이고 전반적인 기초학력이 강화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 참고 문헌

- 강규한(Kang, G.-H.). 2014.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 도입 시 정책적 고려 사항(Policy considerations in applying absolute evaluation to the English section of CSAT).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 도입 방안 탐색』 (A probe into measures to apply absolute evaluation to the English section of CSAT). 제26회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포럼, 5월 22일.
- 김정태(Kim, J.-T.).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절대평가제인가? 절대점수제인가? - 수능 영어시험의 타당성 논의와 제언(In the English section of CSAT, absolute evaluation or absolute scale?: A discussion on the adequacy of the evaluation of the English section



- of CSAT and a suggestion about its evaluative system). 『한국 영어교육의 위기: 유치원부터 대학 너머까지 발표집』 (The crisis in English education in Korea: from a kindergarten to beyond college), 24-36.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4. 조간 보도자료(Morning briefing of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2014년 12월 26일.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8.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 (Reforming the 2022 college entrance system and innovative directions in high school education).
- 테일리안(Dailian). 2018. 수능 영어 절대평가 풍선 효과 ... 영어 사교육비 줄고, 국어·수학 늘고 (The ballon effect made by absolute evaluation of the English section of CSAT ...: An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on Korean and Mathematics in contrast to a decrease in the expenditures on English), 3월 15일.
- 문귀선(Moon, G.-S.). 2018. 영어 격차와 사회 양극화(English divide and social polarization). 『한국 영어교육의 위기: 학교 영어교육과 국가 경쟁력 발표집』 (The crisis in English education in Korea: school English educa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14-26.
- 베리타스 알파(Veritas Alpha). 2015. 2018 수능 영어 절대평가...수학 풍선효과 우려(2018 absolute evaluation of the English section of CSAT...: A concern about the ballon effect on Mathematics), 10월 1일. <http://www.veritas-a.com>에서 검색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0. 2020년 고등학교 기초교과목 군 선택과목 학생 신청 현황 조사(An investigation into high school students' register for courses in the three basic subjects,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서울특별시교육청 제공 자료(Data collected and provided by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이경옥(Lee, K.-O.). 2019. 고교 영어 선택, 이대로 사라질 것인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일 반고 영어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Students' selection of English in high school: Is it losing importance?: Focused on general high schools' reality of managing English curriculum on the basis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한국 영어교육의 위기: 유치원부터 대학 너머까지 발표집』 (The crisis in English education in Korea: from a kindergarten to beyond college), 11-23.
- 이병민(Lee, B.-M.). 2014. 수능 영어 과목 평가 방식, 이대로 좋은가?(An evaluation method of the English section of CSAT: Is this effective?). 제64차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4월 24일.
- 이영식(Lee, Y.-S.). 2018.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Absolute evaluation of the English section of CSAT). 『한국 영어교육의 위기: 학교 영어교육과 국가 경쟁력 발표집』 (The crisis in English education in Korea: School English educa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3-6.

- 이윤(Lee, Y.). 2019. 영양 불균형에 빠진 초등영어(Elementary English in malnutrition). 『한국 영어교육의 위기: 유치원부터 대학 너머까지 발표집』 (The crisis in English education in Korea: From a kindergarten to beyond college), 3-10.
- e-대학저널(e-daehak Journal). 2020. [2020 국정감사] 서울대, 기초학력 저하 '심각'([2020 A parliamentary inspec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erious' decline in fundamental academic skills), 10월 23일. www.dhnews.co.kr에서 검색했음.
- 중앙일보(Joongangilbo). 2014. 영어 과잉 사교육에 신중한 대처를(A prudent treatment for excessive private education of English), 2월 17일. joongang.joins.com에서 검색했음.
- 통계청(Statistics Korea). 2020.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survey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2019), 3월 10일. 통계청 보도자료.
- 한국일보(Hankookilbo). 2020. 코로나19 전후 시험성적 분석 ... '학력 저하' 진짜였네(An analysis of students' test scores before and after COVID-19 ... 'A decline in academic skills' has proven true), 11월 10일. m.hankookilbo.com에서 검색했음.
- 한재갑(Han, J.-G.). 2014. 수능 뒷에 갇힌 교육부(Korean Ministry of Education caught in a trap of CSAT). 뉴시스 한재갑 교육 칼럼.
- 황종배(Hwang, J.-B.). 2014. 수능 제도의 최근 변화 및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A recent change in the system of CSAT and an application of absolute evaluation to the English section of CSAT). 학교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능 영어 개선 방안 대토론회 (Conference for improvement on CSAT for the normalization of school English education). 건국대학교, 7월 24일.
- 황종배(Hwang, J.-B.). 2018. 영어 수능 EBS 70% 연계: 무엇이 문제인가?(The 70 % connection to EBS in the English section of CSAT: What's the problem?) 『한국 영어 교육의 위기: 학교 영어교육과 국가 경쟁력 발표집』 (The crisis in English education in Korea: School English educa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7-13.

예시 언어(Examples in): 영어(English)  
 적용 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영어(English)  
 적용 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전체(All)